

필자는 2018년의 마지막 날과 2019년의 첫 날을 추자군도에 서 보냈다. 해마다 12월말이나 1월초에 추자군도로 낚시를 가는데 이번에는 함께 활동하는 백만전 필드스텝과 다녀왔다. 사진은 본류대를 공략해 첫 참돔을 낚았을 때다.

추자군도 조행기

노는 물이 다른 '큰 바다'에서 참돔과 감성돔 손맛

- 푸레잉 '삼봉여'에서 화끈한 입질
- 초등 시즌 끝나가는 애매한 시기(?)
- 감성돔, 참돔, 돌돔 모두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 수심 얕은 여밭이 급소
- 큰 녀석은 본류대에서 논다

| 정종찬 (추천류 필드스텝) |



■ 첫 날에는 푸랭이 '삼봉어'에 내려 낚시했는데 조류와 바람이 서로 반대방향이라 채비를 운영하기가 어려웠다. 발밑에서도 감성돔을 낚았지만 결국 본류대를 공략해 덩치 큰 참돔과 감성돔으로 확끈한 손맛을 즐길 수 있었다.



■ 본류대를 공략해 참돔을 끌어내는 장면. 옆에서 지켜보던 백만진 필드스텝이 생생한 파이팅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45cm 정도 싸알이었는데 본류대에서 입질을 받은 탓에 끌어내는 시간이 평소보다 오래 걸렸다.

필자는 처음 추자군도를 접한 2008년 이후 매년 12월말에 '추자바다'를 찾는다. 지난해에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주)천류 바다 필드스텝 백만진씨와 추자로 향했다.

멀고도 험한 여정을 자랑하는 추자군도를 찾는 이유는 다양한 어종을 낚을 수 있는데다 넉넉한 마릿수 조과도 기대할 수 있고,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대물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12월말에 추자군도를 찾을 때 정해둔 대상어종은 감성돔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초동시즌이 끝나가는 12월말~1월초에는 참돔도 잘 낚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추자군도 겨울시즌이 시작되고 감성돔이 30~50cm급으로 다양하게 등장한다면, 수온이 차츰 떨어지는 초동시즌에는 오히려 싸알이 잘아진다. 특히나 이번 출조 때처럼 조그름을 전후한 물때라면 더욱 그렇다. 그래서 이번 출조에서는 감성돔과 참돔을 대상어종으로 정했다.

잠시 좋아진 날씨를 틈타 많은 낚시인들이 추자군도를 찾았다. 물론 여기서 낚시는 바다상황이 좋아졌다는 말이다.

추자군도에 도착해 현지 낚시배로 옮겨타고 푸랭이 '삼봉어'에

내렸다. 지난해에도 60cm 감성돔을 배출한 유명한 포인트, 내심 기대를 해본다. 이번 출조에 가이드로 동행한 진프로피싱샵 진성준 대표가 발앞은 수심이 8m 정도, 본류대를 공략할 때는 찌밀수심은 14m로 맞추면 틀림없다고 자신있게 이야기 하고 다른 포인트로 멀어져갔다.

해가 뜨기 전 7시가 물돌이 시간이라 아침 6시부터 전자찌를 달아 낚시를 시작했다. 아직 녹지도 않은 백크릴을 두레박에 비닷물을 퍼 담아 넣어두는데 수온이 괜찮은 느낌이었다. 물 밖 날씨가 너무 추워 바닷물이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미끼가 녹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밀밥에 있는 크릴을 골라 바늘에 끼우고 멀리 캐스팅을 했다.

조류는 낚시자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바람은 반대로 불었다. 1.5호 전자찌가 바람에 밀려갈 정도로 어려운 낚시가 될거라는 불안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동이 트기도 전에, 그리고 밀밥을 아예 뿌리지 않았는데



■ 해마다 겨울에 추자군도를 찾는 이유는 감성돔, 참돔, 돌돔 등 다양한 어종을 낚을 수 있는데다 대물을 걸어 진한 손맛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자군도를 대표하는 낚시터 가운데 하나인 밖이역섬과 절명여를 바라보며 올 시즌이 끝나기 전에 6짜 감성돔을 만나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다.



■ 70cm급 참돔을 걸어내는 장면. 초반에는 저항이 너무 강해 낚싯대를 세우고 바티 그만 있었다. 녀석이 본류대에서 저류대로 빠져나올 때 릴을 감으며 제압할 수 있었다.



▲ 필자가 사용한 '올뉴 신천용 T' 낚싯대. 1호대 개념이지만 허리힘이 강하고 액션 밸런스가 탁월해 대물급을 상대할 때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

◀ 철수하기 전에 찍은 사진. 이날은 발밑에서도 감성돔을 낚았지만 본류대를 공략해 만족스러운 조과를 거둘 수 있었다.

30cm 초반 감성돔이 낚였다. 발밑에 감성돔 무리가 들어온 것 같아 발소리와 불빛 하나도 조심스러워졌다. 드디어 해가 떠오르고 조류에 힘이 붙으면서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잠시 후 또 입질이 왔다. 이번에는 40cm가 넘는 씨알이 올라왔다. 하지만 더 이상 감성돔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류가 원활해졌지만 바람도 더 강하게 불어대 찌가 조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밑채비가 제대로 정렬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해 뜨는 시간과 물돌이 시간이 겹치는 황금 물때를 놓치고 말았다.

가까운 지점은 공략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참돔으로 대상을 바꿨다. 추자의 묘미라 할 수 있는 본류대낚시를 시작했다.

수심을 14m에 맞추고 3호 구멍찌에 -3호 순간 수중찌를 연결하고 원줄은 3.5호 목줄은 2.5호를 사용했다.

물때가 2물이라 본류대가 크게 뺏어나가지 않고 갯바위에서 40~60m 떨어진 지점에서 힘을 잃고 있었다. 그 근처에서 본류대에서 빠져나온 찌는 지류를 타고 돌다가 다시 본류대로 빨려들어가 패턴으로 움직였다.

수면에 학공치가 엄청나게 많아진 것을 확인하고 간새우를 미끼로 사용해보기로 했다. 참고로 겨울 추자군도에서는 대체미끼로 옥수수나 간새우를 추천한다. 4호 감성돔바늘에 간새우를 통째로 끼우고 본류대를 직접 공략했다. 서너번 캐스팅을 했음에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본류대에서 참돔을 연속으로 낚은 다음에는 50cm에 가까운 감성돔을 끌어낼 수 있었다. 순간적으로 찾아온 강력한 입질에 처음에는 베일을 닫기조차 버거웠다.

좋다. 이번에도 입질이 없으면 다시 크릴을 미끼로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류대에서 흘러나와 지류를 타고 흐르던 찌가 다시 본류대로 합류되는 게 보였다. 찰나의 순간 원줄을 확 가져가는 강한 입

질이 왔다.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백만진 필드스텝도 참돔이라고 확신할 정도로 시원한 입질이었다. 잠시 후 참돔이 수면에 떠올랐고 끌어내고 보니 45cm 정도 되었다.

같은 방법으로 몇 번 더 캐스팅을 하고 채비를 흘리기를 반복할 때 찌가 다시 쓴 살같이 물속으로 사라졌다. 이번에는 들고 있던 '올뉴 신천옹 T' 낚싯대가 조금은 불안하게 느껴질 정도로 강력한 입질이었다.

▶ 필자가 12월 31일에 푸령이 '삼봉여'에서 거둔 조과. 30cm와 40cm 초반 감성돔은 발밀을 공략해 입질을 받았고 참돔과 50cm에 가까운 감성돔은 본류대를 직접 노려서 끌어냈다.





■ 백만진 필드스텝은 새해 첫날 제일 좋은 감성돔을 2마리 낚았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와 우박이 번갈아가며 내리는 나쁜 상황에서도 뛰어난 집중력으로 새해 첫 손맛을 즐겼다.

초반 저항이 강해 스플이 계속 역회전했고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어 낚싯대를 세우고 버티고만 있었다. 다행히 지류 쪽으로 녀석이 빠져나오길래 드랙을 조이고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그렇게 한판 승부가 펼쳐졌고 결국 70cm 정도로 보이는 참돔이 수면에 모습을 드러냈다. '울뉴 신천웅 T' 낚싯대가 잘 버티주어 무사히 끌어낼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안전한 랜딩을 하느라 파이팅하는 시간이 좀 길어져서 힘이 빠졌지만, 이 즐거운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 갈무리하고 나서 곧바로 낚시를 시작했다.

잠시 후 이번에는 베일을 미처 닫지 못하는 입질이 왔다. 기회를 엿보다가 베일을 닫고 파이팅을 이어갔다. 옆에서 이 장면을 보던 백만진 프로가 사진을 찍어주고 동영상도 휴대폰에 담았다. 덩치 큰 참돔을 낚은 직후여서 그런지 팔에 힘이 빠지고 있었다. 그렇게 밀고 당기는 승부가 잠깐동안 이어지고 5째로 보이는 감성돔이 떠올랐다. 뜰채에 담고 길이를 재보니 47cm가 나왔다.

발밑에서 중치급 감성돔이 입질을 하는 상황이었지만 낚시를 해보니 큰 녀석들은 본류대에서 올라왔다. 역시 감성돔이나 참돔도

두 덩치에 따라 노는 물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날물이 끝나고 들물이 진행될 때 갯바위를 넘어 포인트를 옮기려 했으나 맞바람이 강하게 불어 낚시를 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하는 수없이 그런대로 바람이 의지되는 곳에 자리를 잡았지만 입질을 받지 못하고 철수했다.

새해 첫날 아침, 어제보다 날씨가 더 나빴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하늘은 우중충하게 흐렸으며 나중에는 우박까지 떨어졌다.

민박집에서 상추자도 부속섬과, 하추자도 부속섬을 구분해 7시에 각각 출항을 한다고 한다. 필자는 하추자도를 선택했고 2015년에 내려본 적이 있는 사자섬 꼬리 쪽에 '마당'이라는 작은 흙통 포인트에 자리를 잡았다.

이곳은 사자섬에서도 수심이 아주 얇은 곳으로 초등시즌에 감성돔을 마릿수로 낚을 수 있는 포인트다. 물때 상관없이 감성돔이 낚이지만 사리 전후에 더 나은 조황을 보인다. 포인트 설명을 잠깐 하자면, 흙통 중간에 간출여가 있는데 조금 물때에도 만조에는 잠기므로 미리 위치를 기억해 두는 게 좋다. 들물은 낚시자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고 날물은 반대로 흐른다. 발밑수심은 6~7m고 갯바위에서 벗어날수록 조금씩 깊어져 12m 정도를 보이

고 멀리 공략하게 되면 14m까지 나온다.

아침 들물에는 흙통을 끼고 불어오는 강한 바람으로 몸을 가누기가 힘들 정도였다. 그래서 백만진 필드스텝은 바람을 등지고 낚시할 수 있는 자리로 이동했으며, 필자는 계속 흙통을 노리다가 결국에는 지쳐버렸다.

백만진 필드스텝이 낚시하는 자리 근처에 방어인지 부시리인지는 모르지만 미터급으로 보이는 녀석들이 몇 마리 보인다는 말에 욕심이 생겼다. 화끈한 손맛이라도 즐겨보자는 생각으로 목줄을 바꿔 공략했는데, 결국 필자는 1번을 터트리고 백만진 필드스텝은 4번이나 터트리고 말았다. 목줄 4호가 입질을 받고 나서 1초만에 아웃이 되는 상황이었다.


새해 첫날에는 백만진 필드스텝이 감성돔을 2마리 낚았다. 근처에 있는 미터급 물고기가 빠지고 나니 감성돔이 접근했는지 짧은 시간이 연속 입질을 받았다. 목줄은 4호를 그대로 사용했고 바늘도 참돔13호를 계속 썼는데 원줄까지 가지고 가는 시원한 입질이었다고 한다.

감성돔을 몇 마리 더 낚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날씨도 나쁘고 철수할 시간이 다가와 낚시대를 접었다. 물밑에 감성돔이 버글버글 할 것 같은데, 밀밭도 엄청 뿌렸는데, 아쉬움이 남았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장비를 정리했다.

추자군도 낚시는 낱을 쳐도 재밌고 못 낚아도 재미가 있다. 낚시인들이 흔히 “추자까지 가서 낱 치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

실 추자군도에서도 별다른 조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확실한 것은 추자군도는 어중에 따라, 또는 씨알에 따라 물고기가 노는 물이 다르기도 하지만 낚시방법도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낚시해야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민박집으로 돌아와 확인해 보니 이날 하추자도권으로 출조한 낚시인들 가운데 백만진 필드스텝이 가장 좋은 조과를 기록했다. 하지만 상추자도권에서는 감성돔이 많이 낚였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이런 바람 통에도 나오는 곳에서는 나오는구나 생각하며 역시 추자군도는 대단한 낚시터라는 점을 또 한번 느꼈다.

사실 12월말이나 1월초는 조금 애매한 시기다. 마릿수 조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씨알은 조금 아쉽다. 1월 중순부터 진정한 6짜 감성돔 시즌이 열리는데, 올 시즌이 끝나기 전에 다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출조문의 순천 진프로피싱샵 010-8796-1242



■ 이번 추자군도 출조는 대체로 만족스러운 편이었다. 이튿날인 1월 1일에는 비록 아무 조과를 올리지 못했지만 백만진 필드스텝이 감성돔을 낚았고, 필자는 전날 감성돔과 참돔으로 손맛을 즐겼기 때문에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

